

잠자리를 마련해주었지. 또한 비르지니의 앞치마를 온갖 먹을 것으로 가득 채워주더니, 마치 마을 원로들 앞인 것 마냥 그 아이를 우리 앞으로 데려와, 비록 빈한한 처지에 있는 여인이지만 혼인을 올리겠다 선언했네.● 이 장면을 보자 라 투르 부인에게는 친척들에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와, 과부로 살아온 세월, 그리고 마르그리트가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을 맞아주었던 일 등이 불현듯 떠올랐고, 지금은 두 아이의 행복한 결혼을 꿈꿀 수 있다는 희망이 뒤따르면서, 눈물이 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 그렇게 나쁜 일과 좋은 일이 어지러이 뒤섞인 상념에 또한 우리 모두가 아픔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네.

이런 드라마는 실로 생생하게 펼쳐졌기에, 우리를 마치 시리아나 팔레스타인의 벌판으로 데려다 놓는 것만 같았지. 이 공연에 걸맞게 필요한 장식이며, 조명, 악단까지 우리로서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네. 무대로 쓰이던 곳은 보통 숲에 있는 갈림길이었는데, 그곳으로 통하는 오솔길은 우리를 둘러싸고 잎이 우거진 아치형 통로를 여럿 만들어 주고 있었어. 그러니 우리는 그린 통로 중앙에 가서 온종일 열기를 피해 있곤 했지. 그러다가 태양이 지평선까지 내려왔을 때면, 나무줄기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이 숲의 그림자 속에서 긴 빛다발로 갈라지며 더없이 장엄한 인상을 자아

---

● 은수자 성 바오로(230-340년경)는 이집트 테베 출신의 성인으로, 그리스도교 최초의 은수자로 일컬어진다. 그의 전기를 집필한 성 히에로니무스에 따르면, 성 바오로는 데키우스 황제의 그리스도교 박해를 피해 사막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113세까지 은수생활을 영위하며 살았다.